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예후인자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강지, 김명규, 김정엽, 이지은, 신진호, 권영주, 표희정

목적: 지속적 신대체요법은 간헐적 혈액 투석에 비해 심혈관계 안정성과 수액조절 및 영양공급에 있어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인 바 저자들은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은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과 생존에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2년 6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고대부속 구로병원에서 Prisma(hospital)를 이용하여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은 2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별, 나이, 신대체요법의 원인질환, 혈액검사, APACH II score 등의 변수들을 조사하였고 생존 군과 사망 군 간에서 이 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결과: 성비는 남녀 각 12명, 평균연령은 60.6 ± 15.6 세였고 원인질환은 패혈증 66.7%, 심부전이 16.7%, 약물중독이 8.3%, 횡문근 용해증이 8.3%를 차지했고 전체 환자군의 APACH II score는 23.9 ± 5.7 이었다. 이중 지속적 신대체요법 종료시까지 생존한 군은 13명(54.2%)이었고 사망한 군은 11명(45.8%)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생존한 경우는 7명(29.2%)이었다. 생존 군과 사망 군을 비교하였을 때 APACH II score는 22.9 ± 4.06 vs. 25.1 ± 7.19 ($p=0.19$)로 차이가 없었고 원인질환으로서 패혈증의 비율도 69.2%(9/13) vs. 63.6%(7/11)($p>0.05$)로 차이가 없었다. 혈액검사상 albumin은 3.0 ± 0.5 g/dL vs. 2.7 ± 0.6 g/dL($p=0.09$), fibrinogen은 486.7 ± 284.4 mg/dL vs. 265.2 ± 153.7 mg/dL($p=0.03$), Prothrombin time은 $61.6 \pm 25.5\%$ vs. $52.2 \pm 21.3\%$ ($p=0.10$)로 생존 군에서 높거나 높은 경향을 보였고, 혈청 creatinine은 3.8 ± 1.7 mg/dL vs. 4.73 ± 2.37 ($p=0.10$)mg/dL, 혈청 FDP는 26.6 ± 17.3 μ g/dL vs. 33.3 ± 9.7 μ g/dL($p=0.09$)로 생존 군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심장 초음파 검사상 수축기 구혈율은 $53.3 \pm 11.1\%$ vs. 42 ± 14.3 %($p=0.02$)로 생존 군에서 높았다.

결론: 지속적 신대체요법에 의한 생존율이 과거에 비해 향상이 있고 생존 군의 특성에서 보듯이 영양상태 지표와 DIC profile, 수축기 구혈율이 예후인자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상기 변수들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초기에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